



조병임 사무관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2006년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

2006년 육계산업은 한마디로 불황이 우려된다.

국내적으로는 2005년 육용종계 입식물량이 작년보다 16.5% 증가한 5,064천수로 예년(2000년~2003년 평균 4,172천수) 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매년 백세미 물량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과잉구조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작년에 수입이 개방된 닭고기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산 닭고기와 조류인플루엔자로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닭고기 수입물량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금년 육계가격은 그리 좋지 않을 전망이다.

과잉구조에 있는 육계산업에서 육계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급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 대상이 바로 '병아리 입란 및 발생실적'이다. 병아리 입란실적이 매주별 정확히 파악되면, 과잉 입식한 주(週)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주 입란 물량을 줄여서 입란을 해 전체적으로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다.

모든 부화장에서는 매주 입란 및 발생 실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육계 계열화업체 등에서는 입란 및 발생실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아리 입식물량을 조절하여 과잉입식으로 인한 육계가격 폭락을 예방해야 한다.

앞으로는 156개 전국 부화장에서 육계, 삼계, 토종닭 3개 품목으

로 구분하여 매주 입란 및 발생실적 자료를 오픈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형 부화장 중심으로 육계에 한하여 입란 및 발생실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부화장의 인식부족으로 자료제공을 기피하거나 축소해서 보고하는 사례가 있어, 그로 인해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06년 3월부터 모든 부화장에서 주별로 실적을 통보하도록 하고, 병아리 분양일에 불시에 현장점검을 하여 입란과 발생실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2005년 6월부터 분양되는 모든 육용종계부터는 실제 입식한 농가와 계사별로 현장을 점검하여 데이터 입력하는 '종계 데이터 베이스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번 분양된 종계에 대해서는 4차례(분양 당시, 산란초기, 산란피크, 도태)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여 주령별 종계 사육수수 등 정보를 모든 농가에게 매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육하는 종계는 농가별 및 계사별로 주령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종계를 강제환우하여 75주이상 사육이 불가능해 예년과 같이 종계노계로 인한 과잉공급에는 해소할 수 있으나 과잉 입식한 종계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종계는 생물로서 질병발생 상황, 날씨 등에 따라 생산성 저하에 대비한 일정물량을 제외하고는 과잉 입식된 종계물량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진 종계부터 도태해야 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종계에 대한 도태자금은 육계 의무자조금으로 지원될 것이며, 보상기준은 앞으로의 종계과잉 입식자제를 위해서도 최소비용만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004년 2월에 종계도태 영향으로 종계가격이 높게 유지된 것을 인식하여 금년도에도 종계를 도태할 경우 2004년처럼 종계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 종계도태를 기피할지는 모르지만 금년은 2004년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03년말 이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최근 발생한 HPAI로 사람간에도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로, 만약에 국내에서 또 HPAI가 발생할 경우에는 2003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앞으로 2개월간 방역을 철저히 하여 국내에서는 HP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 육계산업은 HPAI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

다. 2003년 12월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HPAI는 2002년 하반기부터 장기간 낮게 유지한 육계가격을 단절시켰고, 2005년 10월부터 외국의 HPAI 발생보도에 따른 소비감축에 대비하여 생산성이 떨어진 종계의 조기 도태와 종계와 실용계 입식감축으로 단기적으로 육계가격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없다.

육계 의무자조금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홍보를 통한 닭고기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은 그 자체로 인식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계열주체 또는 계열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닌 모든 육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육계 관련 산업 종사자가 서로 돕고 협조해야 성공할 수 있다.

육계 계열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갈등과 불신으로는 육계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잦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간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불합리한 점은 서로 협의로 통해서 개선하고,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양자간에 필요하다.

육계농가 및 계열업체, 생산자단체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결정된 정책에 모두 허심탄회하게 참여할 경우 금년도에도 육계산업은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당장 보이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육계인 되도록 노력하자.

앞으로 국내 육계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계사신축 반대, 인건비·사료비·기름값 등 제반 생산비 상승으로 경쟁력 제고의 한계, 대외적으로는 DDA협상에 의한 관세감축과 닭고기 주 수입국인 태국과 미국 등과의 FTA추진 등으로 인한 개방이 확대되어 닭고기 수입물량 증가가 불가피하여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이 위축 등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육계인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 없이 변해야 한다. 육계인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불합리적인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다면 국내 육계산업도 세계속의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